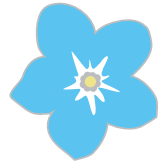


**KWAFU**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130-867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전화 02-967-0625

팩스 02-964-1205

Webpage <http://www.kwafu.org>

E-mail [jinhwan2103@hanmail.net](mailto:jinhwan2103@hanmail.net)

가족회 활동 목적: 진실규명, 명예회복, 유해송환

“북한은 6·25전쟁 중 8만 명 이상의 남한민간인을 납북했다.”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치 음모는 전쟁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인명피해와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른 사전계획 하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문서와 미국문서, 납북 후 탈출자 증언, 납북목격 가족 증언, 납북자 통계자료 등에서도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북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납북자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준 적이 없다.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출처: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1946. 7. 31 『김일성 전집4』

“감옥에 수감, 억류 또는 감시를 받던 1만 명 이상 적어도 2만 명의 정치범들이 9월 17일에서 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사라졌다. …… 서대문과 마포 두 형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수감자들의 손을 묶었고 또 다시 몇 명을 같이 묶었다. …… 비록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총살된 증거가 있지만 이 사람들 대다수의 운명은 불확실하나 북으로 걸어 올라가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믿어진다.“

출처: 미국 국무부 문서 1950. 10. 13 NARA

# KWAFU

## 가족회 연혁 및 활동



Inaugural meeting of KWAFU, Aug. 1951, Saedul Orphanage

현 가족회는 1951년에 창립되었던 6·25사변피랍치민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에 납북자의 남은 가족들이 모여 재 결성되었다.

가족회는 납북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생사와 소식을 알고 사망 시 유해송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한 서명운동, 납북길 따라 걷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에 국가의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를 상기시키고 정부 차원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가족회는 결성 직후부터 북한의 6·25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명부를 비롯한 관련 사료를 수집해 왔다. 자료 수집 외에도 1차 자료 생성 및 연구를 위해 2005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orean War Abduction Research Institute)을 설립하여 생존 가족들의 동영상 증언채록,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2권을 비롯한 연구물 발간,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을 진행해왔다.

이외에도 가족회는 전쟁납북자 특별법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발간한 자료집을 근거로 삼아 가족회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0년 3월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동년 12월에는 법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법에는 정부가 2013년까지 전쟁납북자 신고를 받아 납북자 현재 명단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며, 명예회복 차원의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작성한 납북자 명단에 근거하여 정부가 이들의 생사확인고 유해송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납북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족회는 국제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하거나 참석해왔으며, 2010년 11월에는 미국, 일본, 태국, 루마니아 납북가족 대표 등을 서울에 초대하여 제2회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족회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가족회 대표가 2006년 4월 27일 미국 의회 하원 청문회에서 전쟁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옛날 얘기가 아닌 지금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하였다. 2007년 7월 26일에는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에서 '한반도 문제의 선결요건은 전쟁납북자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주제로 연설 한 바 있다.

가족회는 미국 의회에서의 전쟁납북자 관련 결의안 상정을 돕기 위해 2011년 5월, 10월 두 차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감사하게도 한인유권자연맹의 도움과 일레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마침내 12월 13일 찰스 켈겔 하원의원이 7월 27일 발의한 결의안 H.RES 376에 납북자 내용이 대폭 추가 보완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가족회는 이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북한의 전쟁납북이 범죄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이 이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기까지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란다.

# 북한의 6·25전쟁 중 80,000 명 이상의 남한민간인 납북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 가노라  
조국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 1950년 10월 납북자들이 감금되었던  
평양형무소 내벽에서 발견된 어느 무명  
납북자의 시

## 누가 했나요?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 정권이

## 납북자들은 누군가요?

대한민국에 충성한 공무원, 지식인, 사업가, 성직자, 반공청년단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무기를 들 수 있는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음.

## 왜 납북되었나요?

북한의 국가 건설에 부족한 인재들을 충원하고, 남한에 있는 반공산주의자들을 납치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통한 남한 사회의 분열과 해체를 유도하고, 정치지도자들의 납치를 자발적 입북으로 위장하여 북한체제 선전에 이용하기 위하여

## 언제 어디서 납북했나요?

전체 납북자의 88.2%가 전쟁 발발 직후인 7월~9월에, 80.3%가 집이나 집 근처에서 납북되었고, 북한이 점령한 남한 전 지역이지만 그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42.3%로 집중되어 있음.

## 어떻게 납북되었나요?

대부분 지방좌익의 협조로 무장한 북한군인·정치보위부원·내무서원들이 피랍자를 내무서, 형무소, 기타 구금시설로 강제로 끌고가 구금했다가 손을 묶어 아간에 도보로 강제 복송함.

## 송환

객관적인 분명한 납북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를 인정할 적이 없으며 단 한 명의 납북자도 송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북자의 생사에 대하여 그 어떠한 소식도 준 적이 없다.

# 도움을 주시는 방법

자원봉사 행정지원

인턴 번역, 연구, 자료 발굴 등

재정지원 후원금(소득공제 가능)

국민은행 010901-04-075237 / 외환은행 131-22-01052-4 육이오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